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152-050]
전화번호 02-774-3956
팩스 02-774-3957
이메일 info@unescoapceiu.org
웹사이트 www.unescoapceiu.org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PCEIU

Learning to Live Togethe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교사워크숍 가이드북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raining Manual

기획·편집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본 자료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개발 · 제작된 교사용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가이드북입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선도교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될 시 · 도별 전달연수를 위한 자료(초안)로서, 2015년 시 · 도별 전달연수 실시 이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보완된 최종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교사워크숍 가이드북

기획·편집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팀
집필·자문 : 김종훈(APCEIU 기획행정실장), 이양숙 (APCEIU 교육연수팀장), 엄정민(APCEIU 연구개발팀장), 정경화(APCEIU 국제협력팀장), 이지홍(APCEIU 교육연수팀 전문관), 이대훈(성공회대 교수), 자넷 필라이(Janet Pillai, 아츠 에드(Arts-ED) 대표), 우딤 수바(Udhim Subba, 파크시카 중학교 (Pakshikha Middle Secondary School) 교감), 박상용 (대원고 교사)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교사워크숍 가이드북

2015년 3월 18일 발행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발행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팩스 02-774-3957
디자인 디자인여백
인쇄 ㈜ 웅진홀딩스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교사워크숍 가이드북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raining Manual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에 의해 2000년 한국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을 국내외에서 실시하며, 교육 자료 및 출판물을 개발 · 보급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은 '평화를 지향한 문화 건설'이라는 궁극의 목표 아래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국제교육 등으로 불리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핵심 사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수립하면서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을 세 가지 우선과제 중 하나로 강조한 이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2013년 9월, 대한민국 서울)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3년 12월, 태국 방콕), 글로벌 EFA 회의 중 글로벌시민교육 분과회의(2014년 5월, 오만 무스캇), 지속가능발전 세계회의 중 지속가능발전 및 글로벌시민교육포럼(2014년 11월, 일본 나고야), 제 2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5년 1월, 프랑스 파리), 세계교육포럼 설명회 및 글로벌시민교육 세미나(2015년 3월, 미국 뉴욕) 등을 유네스코 및 대한민국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하면서 글로벌시민교육을 유네스코 Post–2015 교육의제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잇는 새로운 발전 아젠다인 유엔 SDGs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클리어링하우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증진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세계시민교육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본 가이드북은 세계시민교육 교사워크숍에 활용되어 대한민국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 안내

본 가이드북은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총 15시간의 워크숍 매뉴얼입니다. 주요 대상은 **세계시민교육 기초 워크숍을 기획하고 실행할 교사훈련가(Teacher Trainer)**이며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배경과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 참가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워크숍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모색하도록 안내한다.

교사훈련가는 세계시민교육 기초 워크숍의 진행자이자 촉진자(Facilitator)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이 의미하듯 본 가이드북은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기초 워크숍을 위한 것으로, 교사훈련가는 본 가이드북을 활용해 기초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워크숍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워크숍 참가자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형 강의 위주가 아닌 참가자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워크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가이드북은 각 세션을 짧은 강의 및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이에 대한 '토의/나눔'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사 훈련가는 본 가이드북의 워크숍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구성이나 내용 등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나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는 데 있어 15시간의 워크숍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관련 자료나 강의, 분야의 심화 연수 등을 통해 지식과 인식을 확장해갈 것을 권장합니다.

CONTENTS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세계시민교육 1
가이드북 안내 2
진행자를 위한 안내 4

Ⅰ. 들어가기
세션 1: 세계교육포럼의 의의와 세계시민교육 7

Ⅱ. 세계시민교육 만나기
세션 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배경 19

Ⅲ. 세계시민교육 이해하기
세션 3: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제 알기 37
세션 4: 이슈의 복합성과 상호연계성 이해하기 49

Ⅳ.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세션 5: 협력적 소통을 위한 토론 수업 57
세션 6: 프로젝트기반 학습(PBL)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72

Ⅴ. 세계시민교육 실천하기
세션 7: 세계시민교육 실천계획 수립 85

진행자를 위한 도움말

이 가이드북은 워크숍 진행자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닌 워크숍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진행자가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도움말입니다.

워크숍 기획 · 준비하기

워크숍의 목표 세우기: 본 가이드북은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하기 위한 기초 워크숍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의 목적과 부합하는 워크숍을 기획 ·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워크숍 참가자의 특징 반영하기: 워크숍 참가자들의 특징(참가자 구성, 워크숍 참가 목적, 유관 분야의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해 워크숍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워크숍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 워크숍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단한 활동 등을 추가로 기획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이드북 내용 숙지하기: 워크숍을 실행하기 전 진행자는 가이드북과 강의자료 등의 내용을 숙지할 뿐 아니라 워크숍을 함께 진행할 팀원들과의 실습을 통해 활동의 진행, 시간 배분, 질의응답 등을 연습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연습은 실제 워크숍 진행 시 발생하는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더욱 풍성한 워크숍을 위해서는 가이드북에 소개된 참고자료 등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 진행하기

워크숍 환경 조성하기: 본 가이드북을 활용한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므로,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 워크숍 초반에 본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배움의 공동체의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 가는 워크숍임을 주지시키고,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위해 강의실 자리 배치 시 책상과 의자를 일렬로 나열하기보다는 둥글게 원을 그려 앉음으로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기(전체 토의/나눔/설명), 소그룹으로 모여 앉기(소그룹 토의/활동 등), 또는 열린 공간에 자유롭게 의자를 배치(활동 등)하는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자리 배열, 정리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내사항이나 워크숍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워크숍 장소 안에 게시해 놓아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발표한 자료 등을 워크숍 장소 안에 게시해 놓아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가자와 관계 형성하기: 소통과 참여가 있는 워크숍을 위해서는 진행자가 참가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되, 진실되고 정중한 태도로 참가자를 대하며, 참가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료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책임감 있게 워크숍을 진행하며, 계획된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워크숍 흐름 파악하고 대처하기: 진행자는 워크숍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했던 방향대로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예: 참가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토론이 과열되는 경우, 또는 세션 시간이 지연되거나 일부 세션이 취소되는 경우 등) 진행자는 최대한 워크숍의 전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지연이나 세션 취소 등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솔직하게 사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되, 이를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대체할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일부 활동을 축소 등)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원인을 잘 파악해(예: 참가자들의 피로 누적, 쑥스러움, 관심 결여 등)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아래 항목 참조). 워크숍을 처음 진행하는 진행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반복을 통해 대처 능력과 기술을 기를 것을 권장합니다.

활발한 참여 촉진하기: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효과적 워크숍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워크숍을 진행해 보면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숍 참여에 대한 높은 동기와 열정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인 경우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가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의견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참가자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되 지시나 강제적 참여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이 피로감 때문에 워크숍 참여를 어려워할 경우, 짧게라도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재미있는 게임이나 이야기 등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의 시간 확보하기: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활동이나 설명 등이 기획한 시간보다 길어져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참가자들이 세션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등을 동료 참가자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동료 참가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이 더욱 풍성해지기도 하므로 최대한 참가자들의 나눔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워크숍 후속 활동

워크숍 결과 나누기: 워크숍을 종료한 후 워크숍 내용과 결과 등을 담은 자료(보고서 등)를 참가자들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과 느낀 점 등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후속 활동 진행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속하기: 워크숍 참가자들이 워크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워크숍 참가 이후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 활동을 하길 희망하며, 이때 함께 워크숍에 참가했던 동료 참가자들과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면, 동료 참가자들이 필요와 상황에 맞게 이를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고, 어려움과 조언 등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현장 실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Chapter1

들어가기

세션1: 세계교육포럼의 의의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1
세계교육포럼의 의의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목표	세계교육포럼의 의의를 이해하고 세계시민교육의 대두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Post–2015 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을 인지한다.
총 세션 시간	1시간
세션 내용	❶ 2015 세계교육포럼 소개 ❷ 세계 교육의제의 흐름과 동향 ❸ Post–2015 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15분): [활동] 세계교육포럼 및 세계시민교육 빙고게임 ❷ 내용 전개 (45분): ⑴ [영상/설명] 세계교육포럼 소개 (30분) ⑵ [설명] 세계교육목표 및 세계시민교육 (15분)
준비물	빙고 게임 질문지, 작은 상품(빙고 게임용), 2015 세계교육포럼 소개영상(www.wef2015.go.kr), 강의자료(PPT),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참고 자료	2015 세계교육포럼 웹사이트 (www.wef2015.go.kr) The Muscat Agreement (무스캇 선언문, UNESCO, 2014 GEM Final Statement)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UN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웹사이트 (www.globaleducationfirst.org)

목적

세계교육포럼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진행 절차

[활동] 세계교육포럼 및 세계시민교육 빙고게임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을 4~5명 정도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누어 앉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소그룹별로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제시된 질문을 5분 동안 풀게 한다 (5분)

❷ 5분 후 빙고게임을 시작한다. 진행자가 질문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답을 불러주고, 2줄을 가장 먼저 연결한 소그룹이 승리하도록 한다. (5분)

❸ 승리한 소그룹에 작은 선물을 준 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한다.

❹ 빙고게임은 참가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사전 활동이었음을 설명하고, 정답이 적힌 질문지는 강의실 벽에 게시해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본 활동은 세계교육포럼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후 워크숍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경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질문에 답을 맞히는 것보다 진행자가 부르는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게임적 요소이므로 이를 잘 살려서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단, 소그룹별로 답변을 작성하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해 지키도록 한다.

빙고게임 질문지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목표가 출범한 첫 번째 교육세계회의인 'World Education on EFA'는 태국 좀티엔에서 ○○○○년도에 개최되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공통 목표 중 하나는 '○○ 교육의 보편화' 입니다. ○○은 무엇일까요?
EFA(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는 총 몇 개 일까요?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선언될 교육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교육은 무엇인가요? (세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2012년 UN 사무총장 주도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의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목표 2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만 맞춰도 됩니다)
세계교육포럼은 이것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제를 끌고 갈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약자 또는 한글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 달성 기한은 ○○○○년이다. 	세계교육포럼 및 EFA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빙고게임 정답지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목표가 출범한 첫 번째 교육세계회의인 'World Education on EFA'는 태국 좀티엔에서 ○○○○년도에 개최되었다. 1990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공통 목표 중 하나는 '○○ 교육의 보편화' 입니다. ○○은 무엇일까요? 초등
EFA(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는 총 몇 개 일까요? 6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선언될 교육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교육은 무엇인가요? (세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2012년 UN 사무총장 주도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의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목표 2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만 맞춰도 됩니다) 1) 교육기회 확대 2) 교육의 질 향상
세계교육포럼은 이것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제를 끌고 갈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약자 또는 한글)로 EFA (모두를 위한 교육)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 달성 기한은 ○○○○년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및 EFA를 주도적으로 실해하는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유네스코

내용전개

45분

목적

세계교육포럼의 배경과 연혁,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세계 교육 목표에 관해 설명하고, Post-2015 교육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한다.

진행 절차

[영상/설명] 세계교육포럼 소개 (30분)

세계교육포럼 소개 영상(약 1분, www.wef2015.go.kr) 를 시청한 후, 강의자료(PPT)를 통해 세계교육포럼에 대해 설명한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 2015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 의제를 이끌어갈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2015년 5월 19일에서 2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유네스코의 195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와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 및 학교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행사는 전체회의, 주제별 토론, 분과 회의 등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와 국제 포럼, 상설 전시, 기관 방문 등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시도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설치해 회의 기간 동안 각 시도별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계교육포럼 연혁

1990년 태국 좀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	2000년 하반기 유엔총회	2015년 대한민국 인천 세계교육포럼
EFA 공식 출범	EFA 성과평가 및 목표 개선	밀레니엄 선언 채택	EFA를 계승할 향후 국제사회의 교육 목표 설정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① 영유아 보육과 교육 ② 초등교육 보편화 ③ 청소년 및 성인 학습요구 충족 ④ 성인 문해 ⑤ 교육의 양성 평등 ⑥ 교육의 질 향상	**새천년 개발목표(MDGs)** ① 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③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등의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⑧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	

• **1990년 태국 좀티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

국제사회는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유아, 초등, 문해, 기술교육을 아우르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인 EFA(모두를 위한 교육)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좀티엔 선언'을 통해 200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6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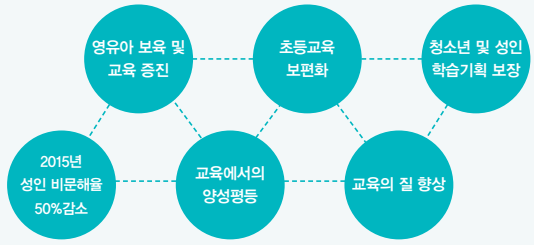
•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는 EFA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교육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은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회의로서 좀티엔에서 설정한 EFA의 6대 목표를 개정(아래 참조)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다카르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더불어 보편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실행해 나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EFA(모두를 위한 교육)의 6가지 과제

❶ 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❷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교육 달성
❸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❹ 성인 문맹률 50% 개선
❺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남녀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교육 성평등 달성
❻ 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EFA
6대 목표



*유네스코는 EFA의 주무기관으로 EFA의 실행과 평가 등을 주도하며 'EFA 세계현황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년 유엔총회를 통해 회의 참가국 대표들은 빈곤, 질병, 환경 파괴 등과 같이 개발을 저해하는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 **2015 대한민국 인천 세계교육포럼**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채택한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과 지난 15년간의 EFA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가 공유할 Post–2015 교육 의제 수립 및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특히 교육 기회 확대를 넘어서 교육의 질 제고, 세계시민교육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발전된 교육의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EFA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 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1990년에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은 보편교육의 확대,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추구, 문해 향상 등 교육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그동안 EFA를 위한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고 미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목표와 실행체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선언될 교육 목표들은 교육계의 합의이면서 또한 유엔 Post-2015 개발의제에 일부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국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세계교육목표 및 세계시민교육 소개 (15분)

강의자료(PPT)를 통해 세계교육목표 설정과정 및 Post-2015 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교육목표 설정과정

- 유네스코는 EFA의 달성을 위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하는 글로벌EFA회의(Global EFA Meeting (GEM))를 개최해왔으며, 최근 글로벌 EFA회의는 2014년 5월에 오만 무스캇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0여명의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이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의 EFA 달성을 위한 세계 각 지역의 성과가 검토되었고 2015년 이후 국제사회 교육 의제의 방향성 및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개의 총괄목표(Goal) 및 7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담은 '무스캇 선언'을 발표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할 의제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EFA 운동은 이제 학습자들이 교육 수준 전반에 걸쳐 양질의 성취를 얻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접근성 보장에 대한 여전한 관심**

  EFA 운동은 1990년 출범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으나 아직도 교육 접근성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 EFA세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6천만 명 이상,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청년이 2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접근성의 보장은 EFA 운동의 근간이 되는 최우선 가치인 것입니다.

  ▷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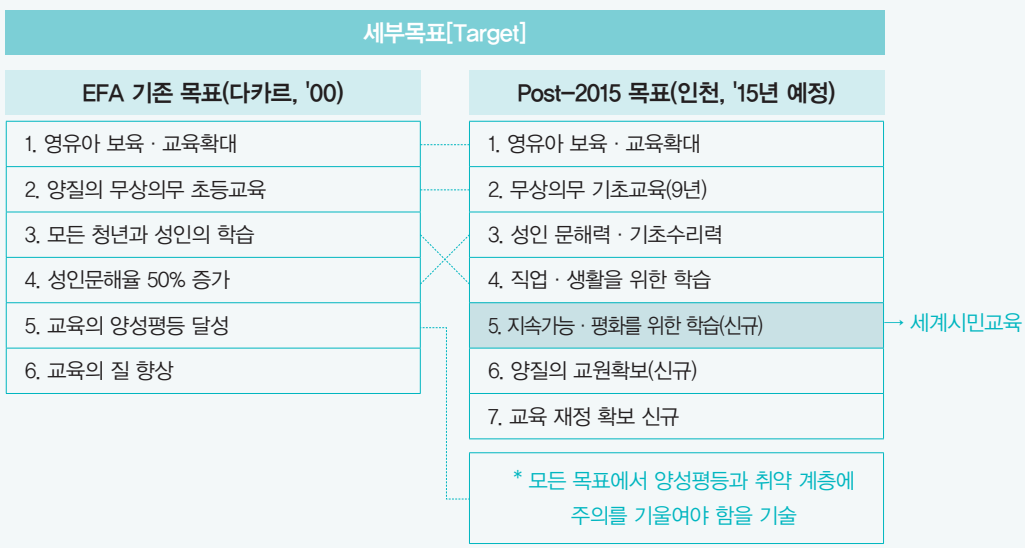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교육 뿐 아니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발표될 총괄목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선언될 교육목표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교육수준에 걸쳐 '양성평등과 취약계층 배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성적 차별은 교육 선진국들에게도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교육 강조**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세계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 · 국가 · 지역 공동체의 강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읽기 · 쓰기 · 셈하기로 대변되는 인지적 역량보다도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의 다섯 번째 교육목표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되었습니다.



Post-2015 교육의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

- 국제사회는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초국경적 현실에 직면하여 세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책임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선언될 교육목표에도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세부목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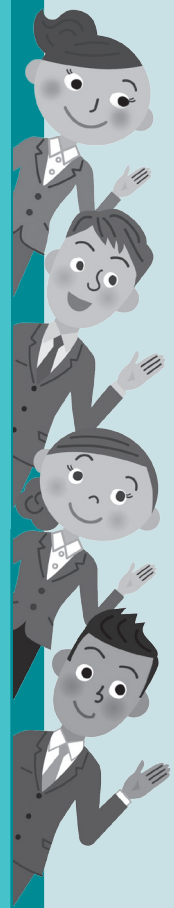
-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제 67차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인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3대 우선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이 선정되며 전세계적 교육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취학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사람들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국제 교육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은 그간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한국 정부간 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이 세션은 참가자들이 본 워크숍의 개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 시간으로 세계교육포럼과 관련된 정보 (EFA, 세계교육목표, 세계시민교육 등)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본 워크숍의 주제인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국내외적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도표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MEMO



Chapter2

세계시민교육 만나기

세션 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배경

세션 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배경

세션 목표	세계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을 이해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이해한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성찰해본다.
총 세션 시간	3시간
세션 내용	❶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상상하기 ❷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배경 설명 ❸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및 역량 소개 ❹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30분) [활동]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상상하기 ❷ 내용 전개 (120분) ⑴ [영상/설명]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배경 설명 (20분) ⑵ [설명]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전달방법 소개 (20분) 휴식 (10분) ⑶ [활동] 내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이란? (30분) ⑷ [활동/설명] 세계시민교육: 7문 7답 (40분) ❸ 마무리 (30분): [나눔] 세션 내용에 대한 참가자 각자의 경험과 느낌 공유
준비물	평화로운 세상 활동을 위한 색지, 마커펜, 흰 종이(내가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 7가지 질문 포스터 및 7문 7답 유인물, 접착식 메모지, 강의자료(PPT),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참고 자료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새로운 교육의제〉

목적

참가자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면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활동]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상상하기

❶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도록 한 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1분).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3가지'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❷ 참가자 1인당 3장의 색지(A4 종이를 세로로 길게 4등분한 띠)와 마커펜을 나누어 주고 상상했던 3가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히 쓰도록 한다. (5분)

❸ 다 쓴 후에는 쓴 종이를 들고 강의실 안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다른 참가자 3~4명과 만나 각자 상상한 세상에 대해 공유하도록 한다. (5분)

❹ 참가자들이 쓴 색지들을 진행자가 걷어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칠판에 붙여 참가자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한다. 다 붙인 후에는 참가자들이 색지들을 읽어볼 시간을 준다. 이후 원하는 참가자 몇 명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모인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15분)

질문예시: 선생님이 생각한 3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다양한 의견이 모인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보니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

❺ 진행자는 활동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본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미 참가자들이 이 가치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며 활동을 정리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워크숍에 참가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기초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각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 경험을 끌어내도록 하는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참가자 자신들의 생각이 모여 세계시민교육이 다루는 주제와 가치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어서 진행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세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목적

세계시민교육의 용어를 이해하고,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배경을 이해한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많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하고 찾아본다.

진행 절차

[영상/설명]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배경 설명 (20분)

세계시민교육 소개 영상(www.unescoapceiu.org)을 시청한 후 강의자료(PPT)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배경을 설명한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 오늘날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 국가들은 복잡한 상호의존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속한 지역 공동체와 국가 뿐 아니라 지구촌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파괴, 빈곤, 갈등과 분쟁 등의 인류 공동의 문제들은 개별 국가가 아닌 전지구적 해결이 요구됩니다.

- 세계시민교육은 전지구적 과제들을 사회/정치/문화/경제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교육의 역할은 지식 습득을 위한 것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 운동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과 방법론 및 이론을 취하는 다면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 운동들이 강조하는 세부 내용이나 주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은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다. 그것은 줄기가 많은 강과 같아서, 우리는 이 강에서 서로 섞이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 토 스위힌(TOH Swee-Hin, 유엔평화대학 교수

• 즉, 세계시민교육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계발에 목적을 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배경

•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배경**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9월 제 6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3대 우선 목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취학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사람들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이란?**

(목적)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기초교육 보급확대)'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교육개발 목표 달성 지원 및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높이고자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세계교육리더들의 네트워크)

(3대 목표) ①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 ②양질의 교육, ③세계시민교육

(방법) ①더 광범위하고 진취적인 교육 비전을 Post-2015 개발의제에 반영,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및 교육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의식 교육, ③ 교육재정 격차의 해소 및 필요를 고려하여 현명한 재정 배분을 위한 노력

• **세계시민교육: 교육 담론의 변화**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은 주로 국가 발전의 수단 및 개인의 잠재력 실현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으로 교육의 목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교육 기회의 확대 및 교육의 결과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노력에서 이제는 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합한(relevant)' 내용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의 강조**

유네스코는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학습의 4가지 기본적인 이념을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유네스코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알기 위한 학습	알기 위한 학습
인지영역 →	충분하고 광범위한 일반 지식을 소수의 주제까지 깊이 있게 적용할수 있도록 조합하는 데 쓰인다. 이는 또한 학습하기 위한 합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생애를 거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직업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보다 넓게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데 쓰인다. 이는 또한 젊은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직무경험을 통해 획득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지역적 · 전국적 맥락에서 볼 때 비공식적이기도 하며, 공부와 일을 번갈아 하는 수업을 포함해서 볼 때 공식적이기도 하다.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비인지영역 →	타인을 이해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는 다원주의 · 상호이해 ·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타인들과 함께 공동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얻어진다.	개인의 인성을 보다 잘 성장시키고, 보다 큰 자율성 · 판단력 ·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어떤 잠재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기억력, 추리력, 미적감각, 체력, 의사소통 기술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은 더 이상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인지적 역량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 감성적 능력, 즉 비인지적 학습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협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명]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전달방법 소개 (20분)

강의자료(PPT)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전달방법을 소개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 인류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 인권, 사회정의, 다양성 존중, 평등,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및 지역의 이슈들과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비판적이며,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 협업, 창의 및 실천의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APCEIU, 연구개발팀)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21세기 인재 기르기>)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일까요?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지 영역
전지구적 과제들 및 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계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사회·정서 영역
인류 공동체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의식, 공감,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

행동 영역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원칙

-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만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자들이 비판적 관점 및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식 전수가 아닌 '대화'와 '탐구'를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통과 협업 능력 배양을 위해 협동적 학습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 학습이 강조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 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목표에 대한 설명 이후 10분간의 휴식을 가진다.

[활동] 내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은? (20분)

참가자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다음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을 4~6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앉게 한다. 이때 가능하면 중등/초등으로 나누어 앉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각자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❷ 참가자들에게 흰 종이를 나눠 주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계시민은 무엇인지,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그림과 키워드를 활용해 표현하게 한다. 이때 진행자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에 대한 그림이나 키워드를 먼저 준비해 예로 보여줄 수 있다. (아래 표현 활동 예시)

❸ 그림은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참가자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표현 활동을 할 때, 앞의 설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참가자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세계시민의 역량이나 특징 등이 있으면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5분)

(표현활동 예)

❹ 표현 활동을 마치면 소그룹별로 자신이 표현한 세계시민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참가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 혹은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필요한 가치나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소그룹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친 후, 전체 참가자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참가자가 있으면 2~3명 정도에게 기회를 준다. (10분)

❺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 세계시민을 표현해보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활동지들은 걷어 강의실 벽 등에 붙여놓아 워크숍 기간 동안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위 활동은 '개인'별로 세계시민교육의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그룹'별로 그림과 키워드 표현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소그룹원들이 먼저 각자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역량과 특징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이를 종합해 그림과 키워드로 표현한다. 이 경우 소그룹원들과의 생각 나누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합의된 의견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더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제약을 줄 가능성도 있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은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참가자가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명/강의' 단계 이후에는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고찰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활동 시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학습이란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생각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움의 공동체의 주역으로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주지시킨다.

[활동/설명] 세계시민교육: 7문 7답 (40분)

활동 진행

❶ (활동 시작 전 준비사항) 큰 종이(포스터 크기 정도)에 아래 7가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질문'을 종이 한 장당 질문 한 개씩 적어 총 7개의 포스터를 벽 등에 게시해 놓는다. 각 포스터 옆에는 접착식 메모지를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다.

❷ 참가자들이 강의실을 걸어 다니며 7개의 질문을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5분)

❸ 참가자들이 질문의 답변, 자신의 생각 등을 접착식 메모지에 자유롭게 적어 질문 포스터 위에 붙이도록 한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으며 관심 있는 3~4개의 질문에 대해 답을 적어도 된다고 알려 준다. (10분)

❹ 접착식 메모지 붙이기가 끝나면, 다 함께 질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질문을 읽고 붙어 있는 답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질문 포스터의 순서는 상관없으며, 동선이 편리한 대로 이동하면 된다. 각 질문별로 원하는 참가자가 자신의 답변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한다. (15분)

❺ 7개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지나면, 자리로 돌아와 앉도록 한다. 7문 7답 유인물을 나눠주어 참가자들이 충분히 읽어보도록 한다. 다 읽은 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경우 생각이나 질문 등을 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10분)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인가요?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모든 주제(세계화, 인권, 평화 등)에 대해 지식을 갖춰야 하나요?

세계시민교육은 저개발국 또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교육인가요?

세계시민교육은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나요?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개념인가요?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교류활동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교육과정이 이미 다 짜여진 학교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칠 시간이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쳐야 하나요?

답변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인가요?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에 대해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다른 나라와 지역,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 특히 지구촌의 높은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계성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을 갖추어 세계의 현상들과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인지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들(인권, 평화, 사회정의 등)을 내재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역량**,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단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이슈만을 다루는 교육은 아닙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세계와 닿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해당 국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습자가 속한 지역의 이슈들, 혹은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이슈들에서 출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저개발국 또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교육인가요?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과 또한 지구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소속 지역과 국가 뿐 아니라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 인권, 사회정의, 평등, 다양성 존중, 평화 등과 같은 가치들이 실현되지 못 하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현상'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이슈들의 관계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개발국의 사람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구촌의 문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구호나 자선 행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체에 대해 제한적 시각**(예: 저개발국 사람들을 학습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을 가지거나, 복잡한 이슈를 **단순화함으로 비판적 사고를 제한하는 역할**(예: 빈곤/개발을 사회 · 정치 · 역사 · 문화적 이슈들이 연계된 문제가 아닌, 개인 혹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단순화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한 평등과 빈곤의 문제–특히 세계화와 관련된–는 저개발국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저개발국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세계시민**이라는 인식 하에 **'도움'이 아닌 '평등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모든 주제(세계화, 인권, 평화 등)에 대해 지식을 갖춰야 하나요?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모든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와 가치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의미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모든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세계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법으로 대화와 탐구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학습과 협동적 학습 등을 제안하는 것과 같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라기보다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교사 역시 배움의 주체로 **함께 배우고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나요?

세계시민교육은 어렵고 복잡한 세계에 대한 지식 전달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목표는 인지, 사회 · 정서, 그리고 행동 영역의 역량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에 맞는 주제와 소재를 선택**하고, 교육의 목표를 해당 연령에 적합하게 설정해 그에 맞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세계시민교육은 가능합니다.

같은 영역의 학습이라도 학습자들의 연령에 맞추어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 존중'에 관해 학습한다면, 초등 저학년에서는 '다름'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초등 고학년에서는 '다름'이 '차별'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인지 하는 내용을, 중학교에서는 다양성과 다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갈등(지역 및 글로벌 단위에서)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이해 및 관점, 그리고 학습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연령별 학습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교류활동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및 사회에 대해 배우고 경험함으로 타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로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의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해외경험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와 관계를 맺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역이나 국가 등의 경계를 넘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속한 국가와 지역 내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 역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교류활동이 세계시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타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것 외에도, **'다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고정화된 편견 을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화하거나 '다름'만을 인식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들이 제안되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으나, 이러한 교육 운동들이 **강조하는 가치와 이슈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다 평의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하더라도 목표 및 강조하는 내용과 가치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교육 운동들과 세계시민교육을 서로 **경쟁적이거나 상반되는 개념의 교육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주제 중심의 교육적 접근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육과정이 이미 다 짜여진 학교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칠 시간이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쳐야 하나요?

세계시민교육은 많은 나라들에서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관련 교과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가르쳐지거나 혹은 범교과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도덕, 윤리, 일반사회 등 사회과목을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그리고 태평양의 팔라우나 파푸아뉴기니 등의 국가에서는 보건이나 체육 교과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영국과 같은 나

라는 교과통합수업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나 가치들은 어떤 **특정 교과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나 외국어, 과학 교과 등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다양한 문학 작품과 예술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가치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의 '내용'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촉진하는 학습의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의 방향이 점차 통합적 접근,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30분

목적

본 세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보고, 앞으로의 워크숍 기간 동안 더 생각하고 배워볼 점이 무엇인지 공유한다.

진행 절차

[나눔] 세션 내용에 대한 참가자 각자의 경험과 느낌 공유

활동 진행

❶참가자들이 가능한 둥글게 앉도록 한다. (자리 이동이 번거로울 경우,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의자를 틀어 참가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다) (5분)

❷ 이번 세션을 통해 배운 내용 중 '가장 새로웠던 점, 가장 인상적인 점,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때 세션 동안 진행했던 활동지, 포스터 등 (미리 강의실에 게시해놓음)을 잠시 눈으로 둘러보도록 안내한다. (5분)

❸ 원하는 참가자들부터 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한다. (20분)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앞서 강조했듯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워크숍인 만큼 진행된 세션에 대해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말해야 한다는 강압적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사려 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 발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자가 적절히 개입한다.

Chapter3

세계시민교육 이해하기

세션 3: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제 알기

세션 4: 이슈의 복합성과 상호연계성 이해하기

세션 3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제 알기

세션 목표	세계시민교육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인 세계의 상호연계성을 인지하고, 나와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경험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평화의 문화의 개념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들 간의 연계성을 발견한다.
총 세션 시간	1시간 30분
세션 내용	❶ 글로벌과 로컬 이해 ❷ 시스템과 상호연계성 경험 ❸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사회와 평화의 개념 이해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10분) [영상] Web of Life ❷ 내용 전개 (70분) ⑴ [활동] 100% 한국인 (10분) ⑵ [활동] 나와 너, 우리의 공존의 법칙 (30분) ⑶ [활동/설명] '평화의 문화'와 세계시민교육 (30분) ❸ 마무리 (10분) [나눔] 나눔 및 마무리
준비물	Web of Life 영상 (www.unescoapceiu.org) 넓은 공간(활동을 위한), 100%미국인 지문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유인물 강의자료(PPT),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참고 자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목적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의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진행 절차

[영상] Web of Life (10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PCEIU)의 애니메이션 영상인 'Web of Life'를 감상한다. (3분 50초)

영상 시청 이후 참가자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영상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참가자 2~3명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진행자는 본 영상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Web of Life: 생명의 그물) 우리의 세상은 다양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촘촘한 그물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간단히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모든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내용전개

70분

목적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세계화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지역을 이해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우리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활동을 통해 인지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활동] 100% 한국인 (10분)

❶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한다.
"선생님은 100% 한국인인가요? 이 중 100% 한국인이 아니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❷ 진행자는 손을 들지 않은(100% 한국인이라고 응답한) 참가자 중 1–2명에게 왜 자신이 100% 한국인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❸ 응답한 참가자 중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음의 질문을 한다.

- 잘 때 침대를 이용하나요?
- 오늘 커피나 차를 마신 적 있나요?
- 신문이나 책을 자주 읽나요?
- 동전과 우산을 사용하나요?

만약 위 질문에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한다면, 선생님은 100% 한국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 때 너무 진지하지 않고, 흥미가 유발되도록 가볍게 말한다.)

❹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왜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라고 질문한 뒤 다양한 답변을 들어보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한국인'임을 규정할 때 우리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나요?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100% 한국인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온전히 한국적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먹는 음식, 생활 방식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지문('100퍼센트 미국인'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4쪽 발췌)을 통해 좀 더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오래 전인 1937년 미국의 랄프 린턴(Ralph Linton)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글입니다."

❺ 진행자는 직접, 또는 참가자 중 한 명이 아래 지문을 읽도록 한다.

100퍼센트 미국인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 미국인(미국주의를 신봉하고 미국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애국자)은 자기가 파자마를 입고 잔 것을 발견했는데, 파자마는 원래 동부 인도에서 기원했으며, 잠을 잔 침대는 페르시아나 소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이다. 만일 비가 올 것 같으면 고무로 된 덧신을 신는데, 덧신의 원료인 고무는 고대 멕시코인들이 발견한 것이다. 또 우산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데, 우산은 원래 인도에서 발명된 것이다.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기차는 영국인의 발명품이다. 기차역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신문을 사려고 잠시 멈추는데, 동전은 고대 리디아(Lydia)인이 발명한 것이다. 기차를 타고 좌석에 기댄 채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는 원래 멕시코에서 발명된 것이며, 시가(cigar)는 브라질에서 발명된 것이다. 그가 산 신문의 글자는 셈족(Semites)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고, 금속 활자는 독일인이 발명한 것이며(주: 금속 활자는 이보다 200년 전 한국에서 발명되었으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약했던 탓에 여전히 독일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이 쓰인 1937년에는 물론 한국의 금속 활자는 서구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의 재료인 종이는 원래 중국인이 발명한 것이다. 외국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를 지적하는 신문 사설을 읽을 때, 그는 인도유럽어로 히브리 신에게 그가 '100퍼센트 미국인'임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이때 '100퍼센트'에 쓰이는 십진법은 그리스 사람들의 발명품이며, '아메리카'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지리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린턴(Linton, R.), "One Hundred Percent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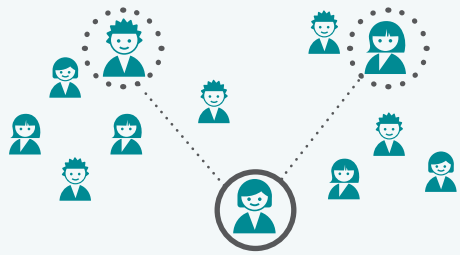
❻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활동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처럼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나 자원의 이동, 국가 간 무역 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활동] 나와 너, 우리의 공존의 법칙 (20분)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이 넓은 빈 공간에 자유롭게 서도록 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모든 참가자들 중 아무나 2명을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어 서게 한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2명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 예시 그림을 참조한다.



상단의 동그라미 친 2명을 마음 속에 생각

❷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삼각형을 다 이루었는지 확인한 후 이제 조금씩 움직이도록 한다.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의 균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❸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멈추도록 한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물어본다.

❹ 참가자들에게 방금 경험한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세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이해를 돕는다.

"나의 움직임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나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도 합니다.'나비효과'도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왜 우리가 '나'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전체)'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나의 문제, 내가 속한 지역, 나라의 문제가 결국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동시에 세계의 이슈들, 문제들이 나의 삶에도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❺ 진행자는 설명을 마친 후,참가자들에게 처음 활동에서 생각한 2명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삼각형을 이루고 서 있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대신, 진행자가 천천히 참가자들 사이를 걸어다니다가 손을 대면 그 참가자는 '죽는다'는 의미로 자리에 앉게 한다. 이 때 그

참가자를 마음속에 생각했던 다른 참가자도 따라 죽게 한다. 즉, 내가 마음에 생각한 2명 중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게 되는 거라고 말한다. 진행자가 돌아다니면서 4~5명 정도 건드리면 전체가 다 '죽게' 되어 자리에 앉게 된다.

❻ 진행자는 참가자 전체가 자리에 앉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제가 몇 명 건드리지 않았는데 전체가 죽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의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오고, 곧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연계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세히 보면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문제의 결과 또한 하나로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문제들은 매우 복합적인 쟁점들이 맞물려 발생하고 그 결과도 매우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❼ 마지막으로, 앞과 같은 활동을 하되, 이번에는 진행자가 손을 대면 그 참가자는 천천히 1부터 5까지 세며 죽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가서 재빨리 구해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 경우, 연관된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행자가 손을 댄 사람을 구해주게 된다.

❽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묻고, 몇 명으로부터 대답을 듣는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번 활동은 우리가 주의 깊게 주변,사회, 세계를 본다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고 '행동'한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❾ 진행자는 본 활동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 되는 개념인 세계의 상호연계성/의존성, 쟁점의 복합성, 타인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 인식(이해), 그리고 행동과 참여의 필요성을 피부로 경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며, 참가자들과 느낀 점 등을 이야기 나눈 뒤 마무리한다.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 사 역량강화 1차연수(2015.1,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중 '지속가능발전교육(이선경, 청주교대)' 세션 중 활동을 요약)

[활동/설명] '평화의 문화'와 세계시민교육 (30분)

활동 진행

❶ 앞 단원의 '세계시민교육 만나기'의 첫 활동으로 진행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상상하기' 활동 자료(참가자들이 뽑은 키워드 모음)를 게시한다. 원본 자료를 보드 등에 붙여 게시할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 스크린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잠시 읽어볼 시간을 주고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선생님들이 키워드로 제시한 '평화로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 즉 평화의 문화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의 문화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❷ 진행자는 아래 평화와 관련된 인용문들을 스크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보여준다.

"만일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

"내적 평화가 없이 세계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달라이 라마)

"평화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침잠에 의해 다가오는 정신의 조건이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자와할랄 네루)

"모든 정의보다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 평화가 정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평화를 위해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

"평화는 피조물에 대한 신의 선물이 아니다. 평화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류는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 위셀)

❸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인용문들을 읽고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2~3명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❹ 다음에는 아래 내용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다. 참가자들이 읽은 후 2분 동안 '평화의 문화'의 특징을 키워드로 5개 이상 찾아서 적어 보도록 한다.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란 살아 움직이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의 인권 존중을 의미하며, 평화, 발전, 민주주의라는 세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힘이다. 삶의 문화로서 평화의 문화는 서로 다른 개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서로 나누고 경청하며 보살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빈곤과 배타적인 태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사회적 평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p.110)>,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❺ 몇몇 참가자들이 자신이 적은 키워드를 나누도록 한다. 키워드를 나눌 때 자신이 이전에 생각하던 '평화'의 개념과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부분이 새로운지, 혹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다.

❻ 참가자들에게 아래의 선언문을 유인물로 나누어주고 3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선언문(특히 서약 내용)을 읽으며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문화 다양성, 인권, 민주주의 등)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엄과 화합의 세계, 정의와 연대의 세계,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며, 나의 일상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둘째, 육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며, 특히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셋째, 배타와 불의,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광신과 비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항상 선호함으로써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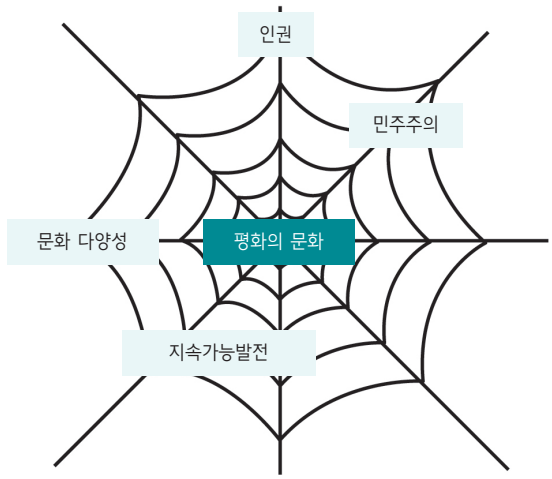
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다섯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는 발전 방안과 책임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를 보전한다.

여섯째.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❼ 참가자들에게 어떤 주제들을 찾았는지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보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말한 주제들을 칠판에 적는다. 칠판에 적을 때는 아래와 같은 '거미줄' 모양으로 적는다.

세계시민교육



❽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찾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아래 주제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해당 주제를 어떤 목적과 내용 등에 중점을 두어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념이다.)

세계화

우리의 삶은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호연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며, 아울러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평화로운 세계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관용과 협력, 대화와 중재 등 다양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화 다양성

문화는 늘 변화하는 것이며 '살아서 움직이는' 것임을 이해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문화적 환경에서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감수성 계발을 통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익히고, 익숙한 우리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지속가능발전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도전과제들(경제, 사회, 환경, 자원, 문화 등의 영역에서)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의미를 깨우치고,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갖지 않게 한다. 사회적 약자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평등의식을 기르도록 하며, 이들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집단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출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❾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주제와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것이 곧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며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할 때, 각 주제들을 독립적이거나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개념들로 보고,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참가자들이 활동을 통해 이해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점검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활동의 경험을 통해 바탕으로 아래 개념들에 대해 짧게 설명해보도록 한다.

- 세계화
- 상호연계성
- 행동과 참여
- 평화
-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

세션 4
이슈의 복합성과 상호연계성 이해하기

세션 목표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로컬 이슈들의 복합성과 상호연계성, 인류 보편의 가치(인권, 평등, 정의, 평화 등)를 이해한다. 활동을 통해 이슈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경험해 본다.
총 세션 시간	2시간
세션 내용	❶ '물은 누구의 것인가' 다큐멘터리 영상 시청 ❷ 토론 활동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5분) [설명] 영상물 소개 ❷ 내용 전개 (100분) ⑴ [영상물 시청] 다큐멘터리 '물은 누구의 것인가' (60분) ⑵ [활동] 원탁토론: 물은 누구의 것인가? (40분) ❸ 마무리 (15분): [나눔] 나눔 및 마무리
준비물	물은 누구의 것인가–2부 슬픈 장미 (SBS 스페셜 341화) http://w3.sbs.co.kr/tvview/tvviewDetail.do?pgmSct=CU&pgmId=00000311936&brdTyp=&type=PROGRAM '생각해 볼 문제' 유인물 토론활동을 위한 색지(4가지 그룹)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목적

참가자들에게 이번 세션의 목적(세계시민교육의 지향하는 '통합적 지식'과 '이슈들의 복합성과 연계성 이해' 경험하기)을 소개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설명] 영상물 소개

❶ 참가자들에게 본 세션은 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해보는 시간임을 안내한다. 영상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소개 및 설명
>
> 이 영상물은 '물은 누구의 것인가-2부 슬픈 장미'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세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빈곤, 차별, 평등, 인권, 정의 등)을 볼 수 있는 영상물이며, '생각해 볼 문제들'을 먼저 읽어본 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❷ 참가자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들'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읽게 한다.

생각해볼 문제

'물'은 평등한 권리로서 모두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물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가, 아니면 자본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재화인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세계화의 영향은? '세계화'는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가?

개발에 있어 다국적기업과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역 주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이를 평등과 정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선진자본에 의한 개발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국의 '물 보호'의 위험성 및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해보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개발의 역설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경제적 발전을 위해 공동체의 붕괴(새로운 갈등과 분쟁)는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연대 및 참여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목적

참가자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요소인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원탁 토론(역할극)을 통해 다른 입장과 견해를 표현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기술을 실습한다.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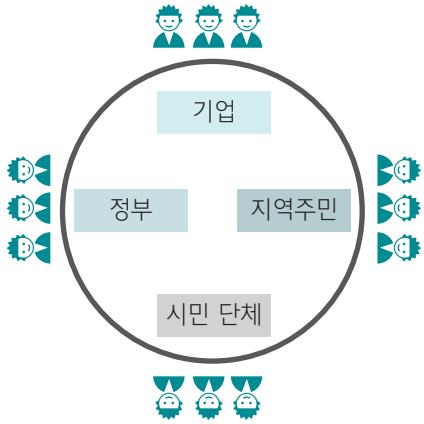
[영상물 시청] 물은 누구의 것인가? (슬픈 장미) (60분)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누구의 것인가-2부 슬픈 장미' (SBS스페셜 341화))을 시청한다. 영상을 시청한 후 제시된 8가지의 질문 중 2~3개를 선택해 간단한 답변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활동] 원탁토론: 물은 누구의 것인가? (40분)

❶ '기업/자본가', '정부', '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이름이 적힌 색지를 참가자 수만큼 준비한다.(예: 참가자가 20명일 경우, 각 5장씩)

❷ 색지를 나누어 주며, 참가자들은 각자 받은 색지 안에 적혀 있는 그룹의 구성원이 됨을 알려준다. 모든 참가자가 큰 원으로 앉도록 하되, 각 그룹원들은 함께 모여 앉도록 한다. 각 그룹 앞에는 그룹 이름을 적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❸ 각 그룹은 다큐멘터리의 등장 인물들을 대표하는 그룹이며,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인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그룹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진행자는 이번 활동이 '원탁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며, 참가자들은 자신을 다큐멘터리 속 인물로 가정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이것은 일종의 역할극으로 해 보는 것이다.

❹ 진행자는 아래와 같이 토론을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진행을 맡게 된 OOO입니다. 오늘은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자 4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인 '물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각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실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❺ 참가자들은 소속 그룹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각 그룹별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야 한다. 토론에서 답변을 발표할 대표자를 지정한다. (5분)

❻ 4명의 대표자가 돌아가며 각 그룹의 답변과 이유를 1분씩 발표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참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룹'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은 기업의 입장과 반한다 하더라도 이 활동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말해야 함) (5분)

❼ 대표자 4명의 답을 들은 뒤,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각기 다르거나 혹은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한 네 분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❽ 참가자들은 자신의 그룹을 대표해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그룹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다른 그룹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 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자는 질문이나 답변이 특정한 그룹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진행한다. (15분)

만약 참가자들의 질문이나 의견 교환이 저조하면,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다. 이 때 앞서 제시된 '생각해 볼 문제' 또는 다음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다. (질문 예시: "정부는 장미공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공장 유치로 인한 이익이 과연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시민 단체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급하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결인가요?" / "지역 주민들은 호텔과 같은 지역 개발이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맥주 공장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본적 권리인 물을 빼앗음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요?" 등)

❾진행자는 각 그룹에게 마지막 질문을 제시한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룹은 처음 제시한 '물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수정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시간 5분을 가진 후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❿ 참가자들은 소속 그룹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이 때 토론에서 나누었던 내용들 및 각 그룹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장려한다. (5분)

⓫ 마지막으로 네 그룹 대표가 1분씩 답변을 하며 토론을 마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이번 활동은 참가자들이 표면적 문제 이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입장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각기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자료는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관람객'에만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영상 자료에서 다룬 이슈들을 자기 자신과 연계시켜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지지하는 입장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입장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이슈와 이해당사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훈련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토론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끼리의 배움이 일어날 뿐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마무리

15분

목적

다큐멘터리 영상과 토론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생각해보고 공유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토론 활동에서 앉았던 자리 배치 그대로) 참가자들에게 영상과 토론 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한다. 특히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실제 생각과 일치하는 입장을 가졌을 때와 반대의 경우의 경험이 어땠는지 나누어보도록 한다.

❷ 진행자는 본 활동에 대해 설명(앞 페이지의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참조)하고 세션을 마무리한다.

Chapter4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세션 5: 협력적 소통을 위한 토론 수업

세션 6: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세션 5
협력적 소통을 위한 토론 수업

세션 목표	세계시민교육에서 다양성과 차이 존중, 차별 극복 가치와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협력적 · 평화적 · 민주적 소통과 소통 문화의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하며, 그 일부분을 연습을 통해서 익힌다. 다양한 토의, 토론 방법을 검토하면서 세계시민교육에서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의 역할과 준비할 점과 이해한다.
총 세션 시간	2시간 30분
세션 내용	❶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❷ 학습의 공간에서 협력적 평화적 소통을 억압하는 요소 및 협력, 평화, 상호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소통의 문화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❸ 생각과 취향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는 평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성찰하기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10분) [설명] 세션 구성 설명,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 형성 ❷ 내용 전개 (110분) (1) [활동] 토론 역량 실습 (50분) – 마주 보고 대화하기 – 외면하며 대화 반복하기 – 두 대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 – '움직이는 액자' 활동: 소통하는 사이와 불통하는 사이 몸 표현 – '움직이는 액자'에 대한 관찰과 분석 – 세 활동 진행방식(페다고지)에 대한 관찰과 성찰 휴식 (10분) (2) [설명/활동]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소통 (50분) ❸ 마무리 (30분) [피드백] 참가자 질문과 토론 및 진행자의 종합 피드백/요약
준비물	강의자료 (PPT 파일),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넓은 공간, 가벼운 의자
참고 자료	김혜숙, 〈생각을 키우는 토론수업 레시피〉, 교육과학사 정문성, 〈토의 토론 방법 56〉, 교육과학사

목적

참가자들이 이번 세션의 내용과 시간 구성, 그리고 진행 방식(참여형 및 자기성찰형)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한다.

진행 절차

[설명] **세션 소개**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에게 세션의 구성 내용을 예고하여 진행에 대해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참가자들에게 세션의 세부 구성에 따른 시간 배분(설명, 실습, 수업안, 피드백, 휴식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알려 주어 시간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❸참여형 및 자기성찰형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 진행자의 위치, 마이크, 연단 등이 권위적이지 않도록 배치하고,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간단명료한 언어와 친절한 태도로 진행자와 주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킨다. 참가자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고, 세션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기대감, 신뢰도, 참여의지, 배움 공동체의 기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짧게, 지루하지 않게, 친절하게 진행하고, 몸짓을 많이 사용하면서 설명한다.

-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참가자들의 사전 지식을 미리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에서 소통 교육이 차지하는 의미를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가치와 연관시켜 강조한다.

- 지식 전달형 수업이 아닌 참여형, 자기 발견형 수업이 갖는 효과와 의미를 반복, 강조한다.

내용전개

110분

목적

- 세계시민교육에서 다양성과 차이 존중, 차별 극복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한다.
- 협력적 · 평화적 · 민주적 소통과 소통 문화의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 실습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학습의 공간에서 협력적 · 평화적 소통을 억압하는 요소는 주로 어떤 것인가, 무엇이 협력, 평화, 상호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소통의 문화 형성을 어렵게 하는가를 이해한다.
-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생각과 취향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평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생각한다.
- 세계시민교육에서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의 역할과 준비할 점을 이해한다.
- 짧은 강의와 다양한 실습, 관찰과 성찰의 배움을 통해서 자기발견적 워크숍이 되도록 한다.

진행 절차

[활동] 토론 역량 실습 (50분)

참가자들이 책상 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소통과 토론 역량 실습을 위한 활동 3가지를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활동 진행

마주 보고 대화하기/외면하고 대화하기 (20분)

❶ 이 활동은 실습이자 관찰 학습임을 알려 주고, 아래 활동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미리 예고한다.

❷ 참가자들을 2인 1조로 구성한다. (진행 예시: “그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 보지 못한 선생님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보세요”)

❸ 각 조가 의자에 앉아 무릎을 맞대고 서로 마주 보게 한다.

❹ 진행자는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이제 각 조끼리 2분간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각자 1분씩 '소통 학습'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한 분이 이야기 할 때 다른 한 분은 진지하게 듣기만 해야 합니다. 1분이 지나면 반대로 다른 분이 이야기하고, 상대는 들어주세요."

(진행자는 참가자가 주어진 1분을 지킬 수 있도록 40초와 55초가 지날 때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

❺ 2분이 지나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지금부터는 마치 녹화된 비디오를 틀 듯, 각 조끼리 방금 말했던 내용을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외면하며 '딴짓'을 하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처럼 각각 1분씩 이야기하세요."

(진행자는 1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 준다)

❻ 2분 대화가 끝난 후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가까이 모여 앉도록 안내한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원형 형태로 앉게 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지금 4분 동안 두 가지 방식으로 대화해 보았습니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소소한 경험과 느낌, 생각 무엇이든 좋습니다."

❼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발언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함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반응 속에서 대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분석해 본다. (예: 긍정적 반응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들, 공감(의미와 감성의 일치 지점)의 경험 등)

❽ 2명의 참가자가 활동을 요약해 보도록 한다. 요약은 짧고 간결하게 하도록 안내한다. 첫 요약자는 진행자가 지정하고 그 요약자가 다음 요약자를 지정하는 식으로 한다. 참가자들의 요약에 대해 진행자는 긍정적인 반응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보인다. 요약해 준 참가자들에게 큰 감사의 표시를 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토론 진행 시, 일차관찰, 세부 관찰, 차이에 대한 고찰, 관찰된 현상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성찰을 묻는 질문을 차례로 한다. 섞어서 질문하지 않고 차례로 질문하여 참가자들의 관찰 수준을 심화시킨다.
부정적인 경험을 말한 이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을 세부적으로 기억하도록 권장한다.(부정적 경험에 대한 관찰에 대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되, 왜, 언제, 어떤 신호를 통해 부정적 느낌이 생겼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권장한다. 그 후에는 그 앞서 있었던 긍정적 경험(경청의 대화 경험)을 상기시키고 이 긍정적 경험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 '부정적 경험'과 대비가 되도록 진행한다.)
진행자는 같은 질문 반복하기, 흉내내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관찰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소통 작용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냈는지 관찰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신호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나요/나빠졌나요?)

움직이는 액자 1, 2 (30분)

활동 진행

❶ 둥그렇게 원 모양으로 둘러선다.

❷ "움직이는 액자" 활동 진행에 대해 안내한다.
"한 사람씩 원 중앙으로 나와 2명이 정지동작(몸의 이미지)으로 주제를 표현하여 '액자'를 만듭니다. 순서대로 액자를 만든 후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면 두 번째 사람은 그대로 정지 상태에서 남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와 새로운 동작으로 액자를 만듭니다."

❸ 매번 다른 동작으로 액자를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관찰 하도록 요청한다.

❹ 진행자는 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주제는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두 사람"이며 진행자가 먼저 참가자 한 사람과 이 주제를 표현하는 액자를 만드는 시범을 보인다.

❺ 진행자가 들어가며, 다음 참가자를 지정한다. 지정 받은 참가자는 원 안에 남아 있는 참가자와 새로운 액자를 만든다. 다음에는 원래 원 안에 있던 참가자가 들어가며 다음 참가자를 지

정한다.

❻ 새로운 참가자들이 표현할 때마다 잘했다고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주도록 한다. 모든 참가자를 활동에 참여시킨다.

❼ 진행자는 두 번째 주제를 안내한다. 이번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라는 주제를 액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활동에 참여한다.

❽ 모두 순서가 돌아가면 표현을 잘했다고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기를 한다.

❾ 활동을 되짚어보는 토론 시간을 가질 것이라 예고하고 둥그렇게 원으로, 서로 가까이 모여 앉게 한다.

❿ 관찰한 바를 한 사람이 하나씩 말하도록 권하고, 매번 발언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 토론 후반에는 발언 내용을 모아서 요약한다.

⓫ 토론 진행 시, 1차 관찰, 세부 관찰, 차이에 대한 관찰, 관찰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성찰을 묻는 질문을 차례로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관찰 수준을 심화시킨다.

⓬ 부정적인 경험이 관찰된 이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을 세부적으로 기억하도록 권장한다.

⓭ 활동 1의 두 가지 대화 활동과 비교되는 점을 성찰해 발언하도록 권한다.

⓮ 진행자는 흉내내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관찰한 몸의 신호를 가시화시켜 기억과 이해를 돕는다.

⓯ 추상적인 성찰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어떤 소통 작용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냈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 중 토론 내용의 요약을 두 명에게 요청한다.

⓱ 요약해 준 참가자에게 큰 감사의 표시를 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 진행자는 진행 순서를 잘 기억해서 매끄럽게, 끊기지 않게 진행한다. 이 활동 전에 가상의 참가자들과 진행 예행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 진행자가 진행 코멘트를 간명한 표현으로 미리 준비하여 명료한 진행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정지 동작 표현 시범을 보일 때는 미리 준비해서 분명한 이미지를 구성하여 보여준다.
- 두 번째 활동에 대한 토론(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표현)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찰이 더 예리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므로, 토론의 내용 역시 더 명료하고 세부적인 언어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
- 토론 시 진행자는 참가자와 같은 위치에서 토론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참여와 토론을 촉진시킨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소통의 훈련을 위한 '관찰'의 힘과 정답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표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이것을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활동을 마친 후 10분간의 휴식을 가진다. 이후 다음과 같이 강의자료(PPT)를 활용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진행 절차

[설명/활동]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소통 (50분)

강의자료(PPT)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가치와 목표 실현을 위한 소통과 토론에 대해 설명한다. 앞서 실습한 내용을 상기시키면 학습에 도움을 준다. 참가자들은 가능하면 8인이 1그룹으로(불가능시 5-6인도 가능) 모여 함께 앉도록 한다.

소통의 원리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시다. 상호연계성과 의존성 이해,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인과의 연대의식, 공감과 가치 및 책임감의 공유 등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이며, 소통은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이런 소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소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둘째, **공감적 소통은 감수성에 기반합니다.** 셋째, **소통은 비언어적 매체에 크게 의존합니다.** 앞선 실습 활동을 떠올려 보시면 이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앞선 실습 활동을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과 그럴 때의 느낌 등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삶에서 실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소통 과정에서 위축이나 억압, 상처가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 준 뒤 아래 활동을 이어서 진행한다.)

- 그 옷 별로네. 딴 거 입고 가거라
- 넌 좋은 대학 꼭 가야지
- 딴짓하지 말고!
- 니가 평소에 열심히 했어야 말이지!
- 알았으면 다음에는 더 잘해 봐.
- 나도 너만했을 때 다 해 봤어. 결국 남는 것은….
- 허튼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 000는 근본이 좀… 피는 못 속이지…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을 8명씩 소그룹으로 구성한다.(불가능 시 5~6명) 각 소그룹별로 위 예시에 나온 말들을 하나씩 정해주고 토론하게 한다.(예를 들면 1그룹에게 "알았으면 다음에는 더 잘해 봐.") 소그룹 내에서 2인 1조로 다시 구성해 2분 안에 주어진 말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5개의 키워드로 뽑아내도록 한다. (예: 무시, 평가, 명령, 등)

❷ 2분이 지나면, 소그룹 내 다른 참가자들과 합쳐 이번에는 4인 1조(또는 3인 1조)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번에는 2분 동안 7개의 키워드를 뽑아내도록 한다.

❸ 2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소그룹 전체(8인, 혹은 5–6인)가 함께 토론한다. 3분의 시간 동안 토론해 10개의 키워드를 뽑아내도록 한다. 이 중 두 명의 발표자를 정하고 토론 내용은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❹ 3분이 지나면 진행자는 각 소그룹별로 발표자 2명을 정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이 때, 한 명의 발표자는 토론 기록을 보고 '키워드 10개'를 말하고, 다른 발표자는 키워드 10개를 들은 뒤 토론 기록을 보지 않고 문장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❺ 각 소그룹별 발표가 끝나면 진행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 준다. 특히 기록을 보지 않고 요약하는 발표자가 가장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 위 활동에서 사용한 토론 기법은 '번개토론'과 '피라미드 토론'이다. 번개토론은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 하나로, '제재 없이 말하기' '더 많은 생각 찾기' ' 참가자들이 모두 골고루 말하기' 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피라미드 토론은 4인(3인) 1조, 8인(6인) 1조 등으로 구성을 넓혀가며 키워드 숫자를 늘려가는 토론 방식이다.

-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짧은 토론을 통해 키워드를 찾고 요약함으로 '분석적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다. 소통을 어렵게 하는 '말'을 분석해 보되 역할 바꾸기를 통해 나를 '청자'의 입장에서 놓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 브레인스토밍은 감수성이 형성되는 훈련 과정에서 논리적인 토론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훈련이 습관처럼 되는 과정은 소통적 토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 진행 시 4가지 원리(최대한 많이, 자유롭게, 통제 없이, 그리고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거치기)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한다.

- 가능하다면 참가자들이 실제 평소에 상처받았던 말들을 추출해내 익명으로 공개한 뒤, 그 '말'들로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경우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기에 더 관심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또한 자기 경험을 '거리를 두고 분석해 보는 작업'을 통해 소통과 감수성, 관계 및 이성과 태도의 변화 등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 키워드 추출·발표하기 활동에서 혹시 목표한 개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성공적으로 다수의 생각을 요약한 점을 축하해주고, 참가자들이 서로 축하해 주도록 한다.

(활동에 이어 강의자료(PPT)로 설명을 이어간다)

앞선 활동에서 보았듯 합리적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 내용 외의 것으로 분위기 잡기
- 감정에 우선 호소하기
- 모 아니면 도
- 인신 공격
- 다수의 주장, 원래 그렇다는 주장
- 우리가 남이가? 이해관계에 호소
- 권위에 의존, '현실론' 의존
- 순환 논법
- 허위적 인과관계 (예: 징크스론, 음모론)
- 상투적 비유로 논리 은폐
- 양자택일로 몰아감
- 상대방 주장 왜곡: 무시, 몰이해, 부분 부각, 절대화
- 쟁점 바꾸기
- 과잉 일반화, 자연주의

그렇다면 관계를 촉진하는 소통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앞선 활동들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판단하지 않는 등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자료: '관계를 촉진하는 소통의 8가지 요소' 슬라이드)

앞서 키워드 뽑아내기 활동을 하며 어휘가 풍부해지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성 뿐 아니라 감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휘를 늘리면 자기 감정의 다면성을 느끼게 되고, 많은 어휘를 습득하게 되면 감성이 섬세해지는 작용으로 가게 됩니다. 섬세화, 감수성, 어휘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휘의 다변화, 섬세화, 감수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자료: '감정 섬세하게 표현하기' 슬라이드)

그렇다면 변화된 소통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생각해 봅시다. (강의자료: '소통과 변화' 슬라이드) 그리고 소통 촉진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세션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자료: '소통 촉진자의 역할' 슬라이드)

토론 기법 소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들이지만, 실제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론 기법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❶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브레인스토밍은 말로, 브레인라이팅은 말로 하던 것을 쓰는 과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모두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모두가 참여, 나온 내용들을 연결' 이라는 4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브레인라이팅의 경우 말로 쓰게 되면, 언어적 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눈으로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주화가 더 쉽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슷한 생각들을 모으기가 쉬워집니다. 브레인라이팅은 가시화 및 개념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❷ 원탁 토의

원탁 토의 역시 규제가 없는 토론 방식으로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명이 주제에 대하여, 규제는 없고, 대신 사회자의 적극적인 촉진역할을 통해서 합의, 또는 요약된 정리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도할 때 활용합니다. 원탁이라는 모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을 곡선으로 배치하면 참가자들 간의 포용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각형 등 직선으로 앉게 되면 몸도 경직되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공간이 지각능력에 미치는 작용은 상당히 큽니다. (활동의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

❸ 번개 토론

키워드 요약 활동을 통해 경험한 토론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뽑아내면 어휘가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감성의 섬세화, 감정의 다면성 느끼기, 감수성 높이기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❹ 피라미드 토론

피라미드 토론은 활동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두 명이 시작해서 여러 명으로 확장해 나가는 토론으로, 약 12명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2분, 3분, 4분, 5분 가량으로 상황에 따라서 줍니다. 피라미드 토론의 특징은 한 얘기를 반복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의견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반복 속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첨가됩니다. 반복되는 면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 마지막에 요약이 수월해집니다.

❺ 스펙트럼 토론

스펙트럼 토론은 일직선 토론 혹은 밧줄 토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논점을 명료하게 하는 이성적인 토론 방식입니다. 16명이면, 8명씩 두 조를 만들고, 그것보다 크면 세 조로 나눕니다. 각 조를 일렬로 세우는데 이를 위해 논쟁적 질문이나 주장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세 번 일으킨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당해야 한다” 라는 논쟁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100% 찬성하는 사람은 오른쪽 끝에,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 끝에 섭니다. 만약 자기는 80% 정도 찬성이라면 그 지점에 가서 섭니다. 이와 같이 질문이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퍼센트로 구상을 해서 찾아가 서도록 합니다. 그럼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는 대충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서 보면, 놀랍게도 스펙트럼이 생겨서 생각보다 의견의 다양성이 높다는 가시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좌우로 짝이 생긴 자신의 옆 사람과 한 가지씩 생각이 다른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번개토론을 여기서도 합니다. 1~2분 동안 생각의 차이점을 찾아냅니다. 생각의 차이점을 봤을 때 내가 70%이고 옆 사람이 80%인 것 같았는데 내가 90%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옮기면, 두 사람이 짝이 바뀌게 되고, 그럼 새로운 짝과 또 생각의 차이를 찾아냅니다. 차이점을 찾고 나서 몇 % 인지 또 생각하고, 모두 옮기면서 74%, 76%, 72.6% 이렇게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한 마디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8명이 8가지의 다채로운 논쟁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생하게 차이를 극대화하면서도 차이를 불편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점점 정리해나가는 토론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❻ 배심토의

배심토의는 배심원처럼 앞에 몇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형식으로, 각각 역할을 부여하면 더 잘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배심토의를 하면 역할극에 참여하

는 사람들 외에도 청중이 참여자들의 발언을 듣는 중 의견을 추가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와서 발언자와 교대할 수 있습니다. 자칫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❼ 경쟁식 토의

경쟁식 토의는 TV에서 보는 100분 토론과 같은 형식을 말합니다. 교실에서 하는 경쟁식 토의는 규칙이 훨씬 더 세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식 토론의 규칙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규칙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감점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진행자가 감점을 관리합니다. 토의를 하다 보면 상대가 자신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진행자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감정적 발언을 감점시킵니다. 또 하나의 규칙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점에 대해 반응을 안 하면 감점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좋은 경쟁식 토론이 됩니다. 상대방의 논점을 무시하게 되면, 논점 회피에 대한 감점 등을 주어야 합니다. 경쟁식 토론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감점을 덜 받느냐에 초점을 두면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터부토론(주제에 관한 어떤 말을 쓰지 못하게 함. 이 경우 이 말을 대신할 다른 말들을 찾게 돼 언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분임토의(문제 해결식 토의), 신호등 토론(참가자의 수가 너무 많고 아직 토론을 위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때 참가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 다른 색깔의 메모지로 신호등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색깔 메모지로 하고 이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함), 6색 모자(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종이 등으로 색이 다른 모자를 만드는데 각 모자는 객관적 사실, 느낌,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창의, 종합으로 구성됨. 각 모자를 쓴 사람은 그 모자에 해당하는 역할만 하게 됨(예: 객관적 사실을 맡은 사람은 '팩트'만을 이야기, 창의를 맡은 사람은 계속 새로운 의견을 내고, 종합을 맡은 사람은 의견을 종합하는 역할.) 어항토론(큰 원과 가운데 작은 원을 그려 작은 원에 5–6명의 사람이 앉아서 토론하되 빈 의자를 하나 더 놓음. 외부의 원은 참관자로 구성. 참관자 중 누구나 말하고 싶은 순간에 가운데 원으로 들어와 답변할 수 있고 떠나고 싶을 때 바깥 원으로 떠날 수 있음. 모든 사람이 한번에 토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시뮬레이션(각자 역할을 맡아 실제 상황처럼 토론을 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러 토론 기법들 중 상황과 참가자의 특징, 필요와 여건 등에 따라 간단한 기법들을 위주로 먼저 활용해보면 토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점차 적응하고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세션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 보고 참가자들의 경험과 피드백, 질문 등을 공유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규모가 30명 이내일 경우) 둥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진행하도록 한다.

❷ 세션에 대한 참가자들의 최종 질문과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에 참가자들 상호 간 피드백을 듣고, 그 후 진행자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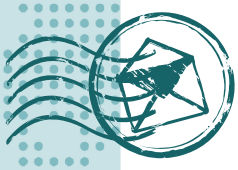
❸ 진행자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 요인 학습의 공간에서 협력적 평화적 소통을 억압하는 요소, 상호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소통의 문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❹ 생각과 취향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익숙해지는, 평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다.

❺ 진행자는 바람직한 세계시민교육과 소통 능력의 연관성을 다시 요약하고, 본 세션에서 진행된 지식 전달형 수업이 아닌 참여형, 자기 발견형 수업의 효과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❻ 참가자들이 서로 격려하도록 하면서 세션을 종료한다.

MEMO



세션 6
프로젝트기반 학습(PBL)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세션 목표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법으로서의 프로젝트기반 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을 이해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PBL을 설계하는 방법을 익힌다.
총 세션 시간	3시간
세션 내용	❶ PBL의 원리를 이해하고 보다 풍성한 학습을 위한 PBL활용 수업에 대해 이해하기 ❷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PBL의 교수학습전략을 알아보기 ❸ 세계시민교육 주제와 원칙을 적용한 PBL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30분) [설명] 변혁적 교수법으로서의 PBL 소개 ❷ 내용 전개 (120분) (1) [활동] PBL 활동 실습 (50분) 휴식 (10분) (2) [활동] PBL 설계 및 실행 실습 (60분) ❸ 마무리 (30분) [나눔 및 요약] 경험 나누기 및 종합 요약
준비물	강의자료(PPT파일),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소그룹 활동 유인물(표 1,2,3), 지시카드, 메모지
참고 자료	Edutopia: 조지 루카스 교육 재단(George Lucas Educational Foundation, GLEF)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교실 수업에서 사용된 PBL 실천 사례들을 소개함. http://www.edutopia.org/project-based-learning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BIE): 학년 및 과목별 PBL활용 전략 소개. http://bie.org/about/why_pbl iEARN USA: 국제 교육 및 자료 네트워크로 국제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 https://collaborate.iearn.org/

들어가기 30분

목적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및 원칙에 부합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PBL을 이해한다.

진행 절차

[설명] 변혁적 교수법으로서의 PBL 소개 (30분)

강의자료(PPT)를 통해 PBL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활동 진행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 이란?

PPT 슬라이드로 통해 아래의 인용문을 보여준 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준다.

"세계시민교육은 지적 토론의 장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은 그들이 인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그렇기에 그들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타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동할 것을 이해해야 한다."
- 최수향, 유네스코 교육, 학습 및 콘텐츠 국장 (제 2차 글로벌시민교육포럼, 파리 2015)

"Global citizenship must be viewed as a life experience and not just a forum for intellectual debates. There must be occasions for learners of all ages to feel that they belong to a common humanity, to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take care of others, both those they know and those whom they don't (know)."
- Soo-hyang Choi, Director of UNESCO's Division for Teaching, Learning and Content. Second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Paris, 2015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제시하고 몇몇 참가자들의 답변을 듣는다.

❶ 위 발언 속의 키워드들을 찾아보세요.

❷ 발언자가 이 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❸ 이 발언에 동의하시나요? 그 이유는?

강의자료(PPT)를 통해 PBL에 대해 설명한다.

PBL이란 무엇인가?

PBL이란 '앎(knowing)'과 '실천(doing)'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학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실생활에서의 문제 혹은 도전과제를 탐구하고 조사하는 협력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프로젝트는 상황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왜 이 세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 해결을 과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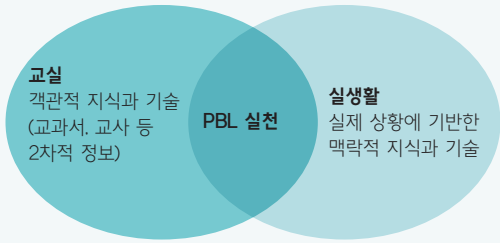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법을 찾고 이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 주요 교과를 통해 배운 개념과 기술들을 활용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PBL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관찰, 질문, 참여, 탐구, 적용,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습법입니다. PBL의 결과물은 자료 분석,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캠페인 활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결과물들은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PPT슬라이드를 통한 예시 제시)

PBL과 '교실 중심 학습' 비교

PBL을 '교실 중심 학습'과 비교해보면 PBL이 가진 특징과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실 중심 학습의 경우 교과서 또는 교사로부터 배운 사실, 절차, 원리 등을 암기하는데 반해 PBL은 실생활의 문제를 소개합니다. 교실 학습이 원리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절차를 적용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활동을 진행하는데 반해 PBL은 실제 생활에 노출되어 탐구함으로 상황의 맥락과 연계된 요인들을 스스로 이해하게 합니다. 교실 학습이 예측 가능한 현상을 관찰하는데 반해 PBL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 의미를 생성해냅니다. 또한 교실 학습이 시험 준비 등을 위해 사실, 절차, 원리 등을 암기하도록 장려하는 반면 PBL은 창의적인 해결법을 찾아내고 결과를 통해 대상(audience)과 소통하도록 합니다.

PBL은 '교실'과 '실생활'을 연결하고 통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BL과 세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원칙

- 학습자가 **실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사고하도록 합니다.
- 학습자들의 상황 및 소속 공동체와 연계된 **참여적인 학습**을 장려합니다.
- 학습자들의 배움은 **학습자들의 필요와 가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합니다.
-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장려합니다.

설명 이후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제시하고 몇몇 참가자들의 답변을 듣는다.

❶ PBL이 선생님 교실에서 사용하는 다른 교수학습법과 비교해 다른 점이나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❷ 선생님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PBL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❸ PBL과 세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지향점이나 방법, 가치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PBL이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식의 설명이 아닌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설명 중이더라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문 또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사례를 통한 PBL 이해

강의자료(PPT)를 통해 PBL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아래 예시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PBL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례

말레이시아 Sacred Heart Convent School 사례 (Balik Pulau, Penang, Malaysia)

주제: 어촌 마을의 전통적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 (지리교과 연계)
참여자: 학급(15세) 및 어촌 마을 5가구
기간: 6개월

프로젝트 실행 단계

❶ PBL 현장 파악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 (교사)
❷ 학생 대상 수업 실시 (사진 찍기, 인터뷰하기, 지도 활용 등)
❸ 질문지 준비
❹ 현장 견학 및 현장 연구 실시
❺ 데이터 분석 및 평가
❻ 결과물 준비

과제 및 결과물

❶ 막대 그래프 (2세대에 걸친 직업군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❷ 지형도 (어촌 마을의 지형 그리기)
❸ 문제 분석 (어업의 위협 요소에 대한 분석)
❹ 종합 결과물: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 포트폴리오

PBL 활동 분석 (교사) : 교실 수업과의 비교

교실 수업	현장 기반 학습
'사실(facts)' 중심의 학습	맥락/상황에 기반한 '사실' 학습
공식이나 원칙에 집중	일상의 삶과 문화에 기반
교과서, 도서 등에 기반한 학습 자료	실제 현장에서의 배움
일반적 이슈 및 국가적 이슈를 학습	'지역'의 이슈를 학습
지식 습득에 '가치'가 개입할 기회가 적음	공감, 권리, 책임과 같은 가치들이 논의됨

내용전개

120분

목적

실습을 통해 PBL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PBL의 효과와 원리 등을 이해하며, 나아가 PBL이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진행 절차

[활동] PBL 실습 (50분)

- 방법: 소그룹 활동
-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선들
- 필요한 자료: 지시카드, '표1'의 인쇄자료 (참가자 1인당 1부)
- 활동 절차
  1. 소그룹 활동 (지시카드를 통한 활동)
  2. 소그룹 활동 내용 발표
  3. 활동에 대한 성찰 및 나눔

활동 1

소그룹 활동(지시카드를 통한 활동) (15분)

참가자들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한 그룹은 대략 5-6명으로 구성). 각 그룹에 지시카드를 하나씩 제공한다. 각 그룹에 제공된 카드에는 아래와 같은 지시가 쓰여져 있다. 각 그룹은 지시카드에 따라 활동한다.

그룹 1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묘사하는 '정중한' 표현(키워드 등)과 '경멸적인'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하세요. 또한 이러한 표현의 배경/이유와 이 표현들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토의하세요. 토론 후에는 최종 발표를 위해 각각 3가지 표현을 정하세요.

그룹 2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 가족, 혹은 지인이 외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전혀 없을 경우, 미디어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이야기) 최종 발표를 위해 2가지 이야기를 요약하세요.

그룹 3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상황과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상황에 대한 2가지 짧은 상황극을 만들어 보세요. 최종 발표 때 2가지 상황극을 발표하세요.

그룹 4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를 찾아보세요. (급여, 노동시간, 직종, 노동 환경, 출신 국가 등) 최종 발표 때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세요.

활동 2

소그룹 활동 내용 발표 (15분)

각 그룹은 3분씩 활동한 내용을 발표한다.

활동 3

활동에 대한 성찰 및 나눔 (20분)

진행자는 특정한 '학습'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질문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때 참가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칠판이나 보드에 적어 참가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각 그룹의 발표는 국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를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각 그룹이 사용한 탐구 방법을 비교하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의 다양한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진행자는 다음의 표를 PPT를 통해 보여 주고 인쇄본으로도 배부하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한다.

표 1: PBL학습에 활용되는 다양한 학습 방법

학습 방법	효과	활동
브레인스토밍 및 토의: 다양한 생각, 의견, 경험을 이끌어 낸다. (그룹 1)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 경험,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한다.
경험 나누기: 참가자들이 경험/이야기를 동등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그룹 2)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소속 공동체에서 주제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수집한다.
역할극: 역할극에 나온 인물들은 그룹의 기대감과 관계에 의해 정의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을 보여준다. (그룹 3)	자신과 타인의 행위, 감정, 동기, 열망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상반된 상황을 묘사하는 역할극을 만들어 본다.
설문조사 및 분석: 통계는 어떤 경향, 의견, 또는 사건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룹 4)	증거를 평가하고 분석함으로 이슈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최근의 주제에 대한 통계를 조사한다.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에서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평가한다.

10분간 휴식한다.

[활동] PBL 설계 및 실행 (60분)

- 필요한 자료: '표 2와 3'의 인쇄자료 (참가자 1인당 1부)
- 활동 절차
  ❶ 교사/학습자의 역할과 '실천을 통한 배움'에 대해 설명하기
  ❷ 'PBL 설계 및 실행' 설명하기 (강의자료(PPT) 활용)
  ❸ PBL 설계를 위한 소그룹 활동
  ❹ 활동에 대한 성찰 및 나눔

활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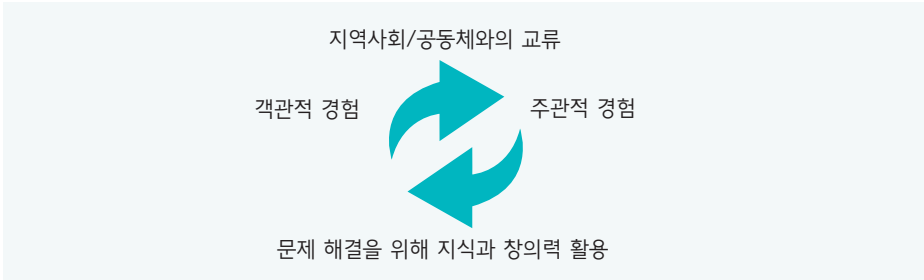
교사/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10분)

PBL 활동에서 교사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습자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을 선정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함으로 학습자들이 이 주제에 반응하여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활동 진행을 위해 학습자들이 지역 공동체, 다른 과목의 선생님, 혹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촉진자로서 교사는 활동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설계하여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선정하고, 구체적 활동을 선정하며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학습자는 '배움'의 주도권을 가지며, 참여형 활동, 공동의 탐구 및 자료분석 활동을 통해 이 배움의 의미를 스스로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촉진자'로서 교사는 학습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목표를 공유하며, 의사결정과 행동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평등한 입장을 취합니다.

'실천을 통한 배움'

효과적인 PBL학습을 위해서는 교실 학습(객관적 지식)과 교실 밖 활동(주관적 지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의 문제 해결 또는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법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사회적 협동, 연대의식 그리고 적극적 시민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활동 2

'PBL 설계 및 실행' 설명하기 (10분)

진행자는 아래 표를 통해 PBL의 설계와 실행에 관해 설명한다.

1단계: PBL 준비와 설계	
과제	**교사(촉진자)가 진행하는 준비 활동**
과제 1	교육내용과 관련된 주제 및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선정한다
과제 2	학습목표와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한다
과제 3	(활동)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외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과제 4	프로젝트의 틀과 활동, 평가방법 등을 설계한다
과제 5	주제와 관련된 교육학적 방법과 활동을 선택한다
과제 6	학습자들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개념과 기술을 소개한다

2단계: PBL 실행		
과제	**실행 단계 (학습자)**	**활동 예시**
과제 1	해당 이슈에 대해 직접 경험한다	온라인 혹은 현장견학을 통한 관찰
과제 2	상황 조사와 사실(facts) 수집	정보 수집
과제 3	데이터의 비판적 분석	데이터 수합 사례(case) 만들기
과제 4	지식, 기술 및 가치(value) 적용하기	창의적인 해결 방법 고안
과제 5	개인/사회적 행동	대중에게 정보 전달 행동하기
과제 6	배움에 대한 성찰	성찰 효과에 대한 평가

활동 3

PBL 설계하기 (30분)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가능하면 학교급별 및 과목 등 유사점이 많은 참가자들끼리 그룹을 하면 좋다. 각 그룹은 학생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PBL 프로젝트를 설계해 본다. 주제는 앞서 활동했던 '외국인 노동자'로 한다. (보다 적합한 주제가 있는 경우 바꾸어도 된다) 앞서 진행한 설명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제시된 순서대로 기획한다. 또한 앞서 실시해 본 활동들에서 사용한 방법/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변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연령과 관련 과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활동 4

PBL 설계에 대한 성찰 (10분)

참가자들은 30분간의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어본다. 나눈 내용은 적도록 한다.

❶ PBL을 설계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❷ PBL을 실제 실행할 때의 큰 어려움은 무엇이 될 거라고 예상하나요?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진행자는 미리 'PBL 설계 및 실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PBL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참가자들이 각 단계의 과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에 이미 익숙해져야 한다. 참가자들이 PBL 설계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

참가자들이 PBL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고, 특히 PBL의 교수학습적 연계성을 성찰해 볼 수 있으며, PBL을 평가하는 법을 익힌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PBL 평가하기 (10분)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PBL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할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나눔이 끝나면 아래 내용을 설명한다.

PBL 학습에서의 평가

PBL 학습에서는 배움이 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 단계에서 피드백을 수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방법이다.

❶ **개별 학습자 평가**는 리서치 노트, 계획서, 일지, 교사의 관찰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에 의해 제공된 과제 수행 또한 평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PBL 프로젝트의 대주제에서 학습자들이 개별 소주제를 정해 개별 과제를 수행함 (글 또는 다른 형식의 포트폴리오 등))

❷ **그룹 평가**는 각 그룹별로 최종 발표를 통해 진행된다. 교사는 각 그룹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룹 내에서 각 개인의 역할은 그룹에서 정한다. 평가 시 최종 발표의 결과물 뿐 아니라 발표를 듣는 대상의 피드백 및 결과물의 전달 방식 등도 함께 평가한다.

❸ **동료 평가**는 그룹 활동 기여도 및 소프트 스킬(협동, 소통,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 등을 포함한다.

❷ 나눔 및 마무리 (20분)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PBL을 활용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MUST DO)'에 대한 항목들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 보도록 한다. 다 적은 후 참가자들은 둥글게 모여 앉고, 각자 자신의 메모를 자기 옆 자리에 앉은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메모지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읽고 나서 같은 방향으로 옆 사람에게 또 전달한다. 이런 형식으로 참가자 전원의 메모를 다 읽게 한다. (자신의 메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진행한다)

메모를 다 읽은 후 진행자는 아래 항목들을 제시하며, PBL을 실행할 때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MUST DO)

❶ 실제 경험과 환경에 기반한 현실적인 프로젝트일 것

❷ 소프트 스킬(소통 능력, 협업, 배려, 리더십 등)과 가치 지향적으로 진행할 것

❸ 팀워크에 중점을 둘 것

❹ 수행과제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수합해 큰 그림을 만들 것

❺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잘 활용할 것

❻ 지역 공동체(사람이나 기관)를 적극 활용할 것

❼ 학습자의 실질적인 기술 함양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할 것 (예: 발표 기술, 사진이나 영상 편집 기술, 글 쓰기, 인터뷰 기술 등)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PBL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학생들과 PBL을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PBL을 경험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PBL 단계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교사들이 PBL이 가진 교육적 효과, 실행을 위한 요소들, 장애요소, 교사의 역할 등을 보다 생생히 알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PBL 예시는 APCEIU의 교사 연수 영상 자료(말레이시아 페낭)를 참조할 수 있다)

Chapter5

세계시민교육 실천하기

세션 7: 세계시민교육 실천계획 수립

세션 7
세계시민교육 실천계획 수립

세션 목표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세계시민교육 실천 계획 수립 및 실행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유하고 인지한다.
총 세션 시간	2시간
세션 내용	❶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와 교실 성찰 ❷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통해 가능성 모색 ❸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❹내가 열어 갈 세계시민교육 기획
절차 (시간 배분)	❶ 들어가기 (20분) [활동] 침묵의 방 (Silent Room) 경험하기 (20분) ❷ 내용 전개 (70분) ⑴ [설명/소개]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례 소개 (40분) ⑵ [활동]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가능성 탐색 (30분) ❸ 마무리 (30분) [마무리] 최종 나눔 및 마무리
준비물	'침묵의 방'을 위한 공간, 안내 영상물, 실천사례소개 PPT, 세계시민교육 실천 가이드라인 유인물, 활동지, 실천계획(안) 양식, 컴퓨터 및 프로젝터/스크린

목적

참가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에게 본 세션은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와 교실 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전, 하나의 활동을 통해 학교와 교실, 아이들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것임을 안내한다.

❷ 참가자들에게 옆 방으로 이동할 것을 공지하며, 이동한 뒤에는 활동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옆 방으로 이동한다.

❸ 활동을 위한 방은 조명을 끈 상태로 어둡게 준비한다. 스크린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리고 진행자와 스텝 등 모두가 침묵을 지켜야 한다. 참가자들이 모두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스크린 영상을 틀며 활동을 시작한다.

❹ 영상은 참가자들이 '학교'와 '배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도록 안내한다. 참가자들은 영상의 안내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원래의 강의실로 돌아온다.

내용전개

70분

목적

참가자들이 그동안의 세션들을 통해 익힌 개념과 기술,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실제 교실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모색해 본다.

진행 절차

[활동]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례 소개 (40분)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을 소그룹(초등/중등 급별)으로 나누고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 후 각 그룹별로 우선순위를 5개씩 뽑도록 한다. (10분)

❷ 다음의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다. 아래 실천가이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도 나눠줄 수 있다.

- 동료 교사들과 힘 모으기
-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 꾸준히 실천하기
- 지역 사회와 연계하기
- 소속 학교의 특징/기회 요소 활용하기
- 참여의 가치 실현하기
- 함께 배워 가기
- 학급 운영 전반에 적용하기

▷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다루는 주제를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회보다 장애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한 가지 방법으로, 긴 시간을 들여, 거창한 내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급 운영에서, 동아리 활동 등에서 크고 작은 '기회'들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 계기수업, 일상 소재를 활용한 활동, 도서관 활용 등)

▷ **소속 학교의 특징/기회 요소 활용하기:** 학교의 방향과 특징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속 학교의 방향성과 중점 분야 등을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인권교육 등)

▷ **동료 교사들과 힘 모으기:**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는 함께 할 동료 교사들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배울 동료 교사들을 찾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권장합니다. (예: 교사모임, 교육과정 재구성, 통합수업 등)

▷ **함께 배워 가기:** 세계시민교육은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배워 가고, 인식을 새롭게 하며, 경험을 넓혀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배움의 즐거움에 동참하세요.

▷ **꾸준히 실천하기:** 세계시민교육은 단기간의 노력과 성과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한 번에 성공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더해가면서 더욱 풍성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와 연계하기**: 세계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의 배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교실 밖'과의 연결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멀리 있는 세계 뿐 아니라 학교/선생님이 속한 지역 사회의 자원(사람, 지역, 기관 등)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해 보세요. (예: 지역사회 NGO, 기관 등과의 연계활동, 지역 이슈 참여하기(캠페인 등), 지역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

▷ **학급 운영 전반에 적용하기:**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학급 운영,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급 문화, 평등과 정의 실천을 위한 노력 등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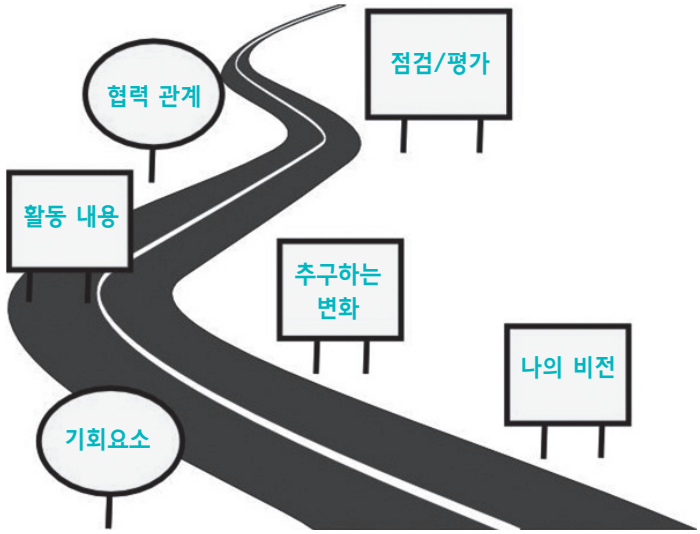
▷ **참여의 가치 실현하기:**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와 지역의 이슈에 직접 참여하고 그 참여가 이끌어내는 변화를 경험할 때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❸ 제시된 내용 외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다. 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별 사례에 대해서는 강의자료(PPT)를 활용해 소개한다 (또는 해당 사례를 발표해 줄 발표자를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활동]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가능성 탐색 (30분)

진행 절차

❶ 세계시민교육 실천 계획을 세워 본다. 실천 계획을 세우기 전 아래 그림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지 먼저 구상해보도록 안내한다. (또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을 안내한다)



세계시민교육 실천 계획(안)

이름:

나의 비전:

주요 영역	기회 요소 (학교의 중점분야 등 현재상황 점검)	추구하는 변화 (목표하는 변화)
교실 · 수업 (내용 및 수업방법) · 특별 활동(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외)		
학교 학생 참여 활동(캠페인, 행사 등)		
협력 활동 지역사회, NGO, 분야 전문가 등과 연계활동		
환경 (학급 운영, 교사모임 등)		

주요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함께 하는 사람**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점검 및 평가** (효과 측정 수단)

예시

주요 영역	기회 요소 (학교의 중점분야 등 현재상황 점검)	추구하는 변화 (목표하는 변화)
교실 · 수업 (내용 및 수업방법) · 특별 활동(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외)	# 동아리 진행	# 프로젝트 기반 활동 시도
학교 학생 참여 활동(캠페인, 행사 등)	# 다문화 중점학교	# '다문화'에 세계시민교육적 관점 입히기 (인권, 정의 등)
협력 활동 지역사회, NGO, 분야 전문가 등과 연계활동	# 학교 근처 인권센터 존재	# 학생들에게 '인권'을 직접 경험할 기회 제공
환경 (학급 운영, 교사모임 등)	# 교사독서모임 참여 중	# 모임 구성원들에게 세계시민교육 개념 소개

주요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함께 하는 사람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점검 및 평가 (효과 측정 수단)
# 지역 내 인권센터 연계활동 시 '이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한 PBL 활동 진행	# 기존 유사 활동 진행 교사 # 협력 기관(인권센터) 관계자	# 학생 활동 후기 # 활동 내용 전시 - 학교 학생들/학부모 등 대상
# '다문화'에 도서 읽기 캠페인 (다양한 주제별(인권,평화,환경 등) 책 선정)	# 담당 교사	# 학생 독후감
# 지역 내 인권센터와 연계활동 진행 (방문 및 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	(*동아리 활동과 연계)
# 관련 도서 읽기 및 추천도서 선정	# 모임구성원	# 모임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마무리

30분

목적

참가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세우게 된 새로운 목표와 비전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을 통해 형성한 '배움 공동체'가 앞으로의 '협력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야기해본다.

진행 절차

활동 진행

❶ 참가자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둥글게 앉는다.

❷ 워크숍의 마지막 시간이므로 참가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 그리고 새롭게 세우게 된 목표나 비전을 동료 참가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진행자는 목표나 비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목표에는 '한 가지'의 변화는 포함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한 나/사회/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인 점을 상기시킨다. 변화의 예를 들면, 자신의 생각의 변화, 작은 행동의 변화, 학생들과 함께 하는 변화, 교실 내 변화 등이다.

❸ 또한 참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최소한 한 가지씩 나누어보도록 권장한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수업 아이디어 나누기, 활동에 대한 후기 나누기, 공동 활동 진행하기, 교사 모임 조직하기 등)

❹ 나눔이 끝나면 진행자는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하며 마무리한다.

진행자를 위한 부가설명

돌아가며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자신의 생각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쓰고 난 뒤 나눔을 하는 것도 좋다 (이 경우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는 여러 색의 털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신이 발언한 후 털실 한 쪽을 잡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할 때 다른 쪽을 던져 주는 활동을 이어가면 참가자들이 모두 '연결'된 모양을 볼 수 있어 공동체로서의 지속성과 상호연계성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나눔의 시간을 제시된 시간(30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어 참가자들이 보다 풍성하게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MEMO

MEMO

MEMO

참고자료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번역,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번역,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201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일조각, 200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사람생각, 2003

APCEIU & UNESCO Bangkok, 〈Designing Training Programmes for EIU and ESD: A Trainer's Guide〉, 2006

APCEIU, 〈A Guide to Teaching Educators on EIU, MDGs and Caring in the Pacific〉, 2012

Oxfam Hong Ko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Guide〉, 2011

Oxfam,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2006

UNESCO Bangkok,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2014

참고 웹사이트

www.unescoapceiu.or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www.gcedclearinghouse.org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www.globaleducationfirst.org (글로벌교육우선구상)

www.wef2015.go.kr (2015 세계교육포럼)

www.unesco.org/new/en/global–citizenship–education (유네스코–Global Citizenship Education)